연중 제16주일 강론(2019년 7월 2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말씀은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 들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마르타의 모습도 있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루카 복음에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다소곳이 예수님의 발치에 않아 말씀을 경청하면서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칭찬받는 마리아와 말 많은 불평꾼으로 전락해 버린 마르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길을 가시다가” 하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베타니아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의 집에 초대받으셨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한 반면,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에 분주합니다.’ 여기서‘분주하다’는 뜻으로 사용한 그리스어는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마르타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중들고 그 분께 잘보이기 위한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심란해진 마르타가 결국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있는 겁니까? 저를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르타는 자기 뜻에 맞게,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마리아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르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르타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마르타야, 마르타야.” 예수님은 마르타에게도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구나.” 여기서 ‘염려하다’는 뜻으로 사용한 그리스어는 ‘믿음이 부족하여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타가 세속적인 성격이 강한 ‘많은 일’에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심란해져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라고 하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 곧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타도 얼마나 착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지녔습니까! 먼길을 온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몹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시원하게 씻으실 준비부터 시작해서, 편히 쉴 잠자리도 봐 드려야지요, 집안 청소며, 정리도 좀 해야지요, 또 급하게 음식도 준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딱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그저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 이야기 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면 성질 나죠. 그리고 마르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둘다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면 누가 일을 해. 나라도 희생해서 일해야지.’ 그렇게 혼자 수고와 희생을 감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혼자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수고와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동생 마리아도 몰라라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미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차츰 신경이 예민해 지고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마르타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화가 나서 프라이팬을 ‘꽝’ 내리칩니다. 얼마나 바쁜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마리아는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만 있는 걸까.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래서 마르타는 씩씩 거리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만 일 하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마르타의 이 말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홀로 수고하는 이가 갖는 서운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 나 혼자만 죽어라 일한다는 생각이 들 때, 공동체 행사에서 나 혼자만 동분서주한다는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감정, 서운함, 억울함, 소외감, 심술, 질투, 시기,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계속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다 때려치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르타가 직접 동생 마리아에게 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세요”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동생 마리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마리아야, 언니가 너무 바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하고 물어보지 않죠. 마르타가 동생이 아닌 예수님께 직접 따지면서 기대한 것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 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해서 헤아려 달라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기대한 주님의 대답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 마르타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 무심했네. 너 혼자 일하는라 고생하고 있었구나.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타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르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야, 마르타야”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무 일만 많이 하려고 힘들어 하지 말아.”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할일만 생각하면서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시중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도, 먼저 할일은 주님과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일 잘하고,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일치하는 내적 평화가 없으면, 일하고 봉사하면서, 늘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과 미운 감정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일만 하다보면, 나중에는 지치고 불평이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 생활도 안하고, ‘내가 그 성당 다시는 나가나 봐라’ 하고 불만만 가득차게 됩니다.

 그래서 일 하기에 앞서서 늘 기도하고 주님과 일치되는 내적 평화를 늘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일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분, 성모 마리아께서도 늘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모든 활동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봉사가 가능해 지는 겁니다. 그래야 불만이 생기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주님의 기도’ 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고 생활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